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

# 엇갈린 與野 지원유세... 험지 공성 vs 텃밭 수성

〈이재명〉

〈한동훈〉

## 4·10 총선

당 차원 지원유세, 후보 지지율 영향 이재명, 서초·송파 등 강남3구 방문 한동훈, 공주·당진 등 충청권 순회

4·10 총선이 3일 남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충청권과 강남권을 돌았다. 당 대표 지원유세는 후보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기에, 어느 지역이든 대표나 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물리·시간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원유세 동선을 보면 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난 주말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동선을 살펴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고, 민주당이 공세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과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 그리고 충북 청주 일대를 방문했다. 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대전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전석을 석권한 곳이며, 충남에서도 일부 지역은 현역이 민주당인 곳도 있다. 거기에 '정권심판론'에 나머지 지역도 흔들릴 수 있으니, 결집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총선 4일 전인 전

날(6일)에는 경남 거제·창원진해·양산, 부산 강서·사하·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 남구·동구 등 국민의힘에게 '텃밭'인 지역을 방문했다. 공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 위원장이 부산경남(PK) 지역에 간 것은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 일정이 끝난 뒤에는 경북 경산과 대구까지 방문해, '텃밭 투어'를 완성시켰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총선 직전 텃밭으로 불리는 PK 지역을 간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텃밭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의지일 수 있다는 의미다.

부산 지역 정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 공천을 잘 못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 "윤석

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이날 계양을 유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지원유세와 재판 일정으로 지역구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활용해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경기 하남 등을 방문했다. 강남 3구는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통한다. 서울 서초을에 3선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지만, 이 지역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

그런데 이날 이 대표는 서초을과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을 방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남 3구에서 이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지원유세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의 전날 일정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선거 전 마지막 토요일인 전날엔 서울 중·성동을, 경기 용인병·이천·여주양평·포천가평·동두천양주연천을·김포을 등을 방문했다.

서울 중·성동을과 용인병, 김포을 등은 접전지다. 그러나 경기 이천이나 여주양평, 포천가평은 '민주당 깃발을 꽂기 어려운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도부 유세는 접전지를 따라 다닌다. 그런데 이천, 여주양평, 포천가평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이 지역이 '해볼 만 하다'는 분위기가 됐다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尹, 교통·의료분야 등 민생현장 광폭 행보

'관권선거' 논란 민생토론회 잠정 중단 용산어린이 병원 방문... 시민 현장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4·10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했지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행사, 늘봄학교, 의료현장을 찾으면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야권은 '관권선거'라며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쉬는 동안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현장을 다니며 민심 경청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지난 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 나온 시민과 만났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 야구장 등 곳곳을 산책하고 시민과 만나 대화하며 사진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며 사진을 찍었고, 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한 윤 대통령은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주 오세요"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총 24회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240개의 국민 과제 해결을 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과 4일,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점검회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며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 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애

착이 있어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며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식을 비롯해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GTX-A 노선 개통식에서 "이번 GTX-A노선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인 GTX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GTX-A·B·C 연장, GTX-D·E·F 건설, x-TX 건설)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불러온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장과 만나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140분간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행사도 챙겼다. 같은 날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의상센터, 부산 삼광사도 찾아 참배를 하며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5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2기 발대식 "청년 아이디어 적극 수렴... 국민통합 동행"

"사회 통합 이끄는 '게임체인저' 기대"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통합과 청년 문제 대안 등을 제시하는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국민통합'은 막연한 구호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청년마당 2기 슬로건은 '청년이 만드는 국민통합, 함께 뛰는 청년마당'이라며 '북배경주민과의동행특위', '노박극복프로젝트 특위' 등 국민통합위의 2024년도 특위 활동들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

제들은 더 나은 내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생각이 함께 모아져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한 싱크탱크다. 주저하지 말고 참신한 의견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시각을 각 정책 제안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섬세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민통합위의 주제는 '동행'이다. 국민통합위는 계속 국민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과 동행하겠다"며 "청년마당 위원들도 국민통합위원회의 러닝메이트로서, 국민통합의 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마당 2기 위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으며 ▲남자 59명·여자 41명 ▲10대 2명·20대 47명·30대 51명 ▲수도권 59명·비수도권 4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 청년인재 100명이 성비와 연령, 지역 균형을 이뤄 구성됐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내년 3월까지다. /박정익 기자